

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착수

- 산업부, ‘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/F’ 착수회의(3.11.) 개최 -
- CES와 같은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 및 지방 전시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3월 11일, SETEC 컨벤션센터에서 ‘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/F’ 착수회의를 개최했다.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 발전법상 「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(2026~2030)」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, 전시장 주변의 호텔,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.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‘산업혁신 플랫폼’으로 진화하고 있다.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·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, 하노버메세와 같은 ‘대표 전시회’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.

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KOTRA,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,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.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‘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’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, K-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.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·관광 프로그램 연계 강화, ‘한류’ 인기를 활용한 K-푸드·뷰티 등 대형 소비재 전시회 기획,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방 대표전시회 육성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다.

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“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,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고, “한국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, 지역의 특색을 살린 「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」을 금년 상반기까지 전시업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	책임자	과장	장미연(044-203-4030)
	무역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유강열(044-203-4034)

참고

「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/F」 착수회의 개요

- (배경) 금년 상반기 中 「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」 수립 추진
 - 관계기관 협력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,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‘전시산업 발전 T/F’ 운영(月 1회 개최 예정)
- (일시/장소) 3.11(수) 15:30~17:00, SETEC 컨벤션센터 3세미나실
- (참석) 산업부 무여투자실장(주제), 관계부처·지방정부·전시업계 등
 - (관계부처) 산업통상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
 - (지방정부)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
 - (지원기관) 코트라, 관광공사, 전시산업진흥회(간사)
 - (전시업계) 킨텍스, 엑스코, 엑스포럼, 경연전람
 - (학계) 한림대학교 윤은주 교수
- (주요 논의내용) 전시산업 발전 추진전략 마련, 주요 협력과제 발굴
 -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 검토
 - 관계기관 주요 협력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토의
- 세부일정

시 간	주요내용	비 고
15:30~15:40 (10')	모두발언	산업부 무투실장
15:40~15:50 (10')	발제 : 국내외 전시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	전시산업진흥회
15:50~16:50 (60')	토 의	참석자
16:50~17:00 (10')	정 리	산업부 무투실장